



신태인농협 사랑의 봉사단, 사랑의 송편 나눔 펼쳐

정읍 신태인농협(조합장 황휘중) 사랑의 봉사단과 직원 봉사단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송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김순기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태인농협 여성조합원으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단은 설맞이 떡국떡 나눔 봉사에 이어, 추석을 앞두고 130Kg의 송편을 직접 빚어, 관내 신태인 갑곡지역의 독거노인 가구, 취약계층 가구 등에 안부인사와 함께 송편을 전달했다.

사랑의 봉사단 한순옥 단장은 “풍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편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앞으로 지역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라이온스클럽, 추석 소외계층에 물품 전달

전주라이온스클럽(회장 정일성)은 추석명절을 맞아 소외계층돕기 물품전달식을 최근 전주시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에서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전주라이온스클럽 정일성 회장, 한향식 유학용(전회장), 양진규 총무, 전주시장애인복지협회 김양욱 회장 등이 참석했다.

라이온스클럽은 쌀80포대과 의류100점을 전달했고, 또한 금안동 주민센터에서 식사대접과 서서하동 희망정원 환경정화를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실시하는 봉사도 벌였다.

정일성 회장은 지역의 소외계층과 명랑한 사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욱 회장은 소외계층을 위해 즐거운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종사한 전주라이온스클럽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 시민과 함께하는 '임산부의 날' 홍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제20회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임신·출산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 퀴즈 이벤트, SNS 참여 홍보, 현수막·포스터 게시 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김제시 공식 SNS를 통한 참여형 홍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을 끌어내며, 임신·출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진안군 부귀면 신상희 씨, 진안사랑 장학금 기부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13일 부귀면 주민 신상희 씨가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신상희 씨는 전달식에서 “진안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춘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는 군민들 덕분에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고 화답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이색적 볼거리로 즐거움 '가득'

제5회 전주거리인형극제 성료, 구도심 차이나거리·웨딩거리서 특별한 추억 남겨

개성 가득한 인형들이 전주 구도심을 찾은 전주시민과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주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전주 차이나거리와 웨딩거리에서 개최된 '제5회 전주거리인형극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틀간 전주 구도심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형극 작품들과 미술, 대형인형 거리 행진 등 총 20회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현장을 찾은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축제를 즐겼다.

특히 행사 첫날인 지난 11일에는 차이나거리에서 마리오네트를 국악과 한국 무용에 접목한 인형극이 펼쳐



인형극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구도심 거리와 상생하는 전주의 대표 브랜드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화성 기자

져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관객 참여형 인형극 등도 진행됐다.

이어 불계 날인 지난 12일에는 웨딩거리에서 코미디 광대극과 매직 인형극 등 다양한 시도를 담은 인형극이 관객과 교감했다.

여기에 대형 인형을 통한 거리 행진은 거리에 있던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함께 참여해 거리에 활기를 더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거리인형극제를 통해 더욱 더 다양한 개성과 매력을 담은

김제신협, 칠봉회와 함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서

김제신협은 김제시 봉사단체 칠봉회(회장 고성훈)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치고, 칠봉회에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노후 주택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 노인복지관의 추천을 받은 김제시 화동골 일대의 한 가정을 방문해 외벽 보수와 페인트칠 작업을 진행했으며, 김제신협 임직원 7명과 칠봉회 회원 10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낡은 외벽이 새롭게 단장되며 참여자들은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칠봉회는 2019년 김제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로, '페인트칠하는 봉사회'로 잘 알려져 있다.

2020년부터 '김제스토리' 봉사대라는 이름으로 매월 1회 이상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2년부터는 월 2회로 확대 운영 중이다. 김제신협은 이번 활동을 위해 1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두 단체는 2023년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빛나는 보행길, 안심 김제' 프로젝트를 통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80가구에 태양광 센서 등을 설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백강식 김제신협 이사장은 “회원들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와 대가 없는 헌신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신협은 지난 9월 김제시영아파트 주민들에게 쌀 4kg 12포대를 기부한 바 있다.

/오상근 기자

국립군산대 평생교육원, '우수전담강사 시상식'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박규연)은 최근 본원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우수전담강사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평생교육원 전담강사들의 수업 역량과 기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전담강사를 선정·표창함으로써, 전담강사들의 사기 진작과 교육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평가 과정은 △교육 전문성 △기관 기여도 △강의평가 결과 △평생교육원 주요행사 참여도 △수강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사에는 평생교육원 원장, 운영위원 교수진, 행정실장, 팀장 등이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그 결과, 김양욱 전담강사(스파치기법과 리더십)와 한경애 강사(고고장부)가 우수전담강사로 최종 선정되어 이날 시상식에서 표창을 수여받았다.



박규연 국립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우수 전담강사 선정을 통해 강사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육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리산낙농농협, 진안군에 고향사랑 430만원 기탁

진안군은 13일 전북지리산낙농농협(조합장 김재옥)에서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총 43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전북지리산낙농농협 직원 43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인당 10만원씩 정성을 모은 것으로, 진안군 발전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달됐다.

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김재옥 조합장을 비롯해 관계자 7명이 참석했으며, 전춘성 진안군수에게 기부금 전달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와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지리산낙농농협은 남원시에 본사를 두고, 진안사업소를 운영하며 지역 낙농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기탁은 진안군과의 상생 협력 의지를 보여주며 지역 간 연대와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부안군-농협 지부, 부안사랑 인구감소 캠페인 동참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0일 NH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조상완)와 협약을 체결하고 직원들과 함께 부안사랑 주소갯기 홍보 및 부안사랑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안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공공기관을 넘어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안사랑 주소갯기 실천운동 적극 동참, 부안사랑 실천 캠페인 참여, 부안사랑인 및 전북사랑도민 제도 확산, 인구감소 위기 극복 공동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자발적 전입을 유도하고 부안사랑인 제도와 전북사랑도민 제도 홍보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장애인단체 자립 활동 현장 방문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장애인단체의 자립 활동과 사회공헌 현장을 찾아 “나눔이 순환되는 따뜻한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남원시 노암동의 꿈드레장 애인협회 남원시지부 뽕튀기 작업장을 방문해 회원들과 뽕튀기 나눔 활동을 체험하고, 새롭게 단장된 벽화조성 현장을 둘러봤다.

이곳 뽕튀기 작업장은 좁은 골목 안 주차지 사이에 위치해 평소에는 찾기 어려운 공간이지만, 시민들과 아이들이 봉사와 체험을 위해 꾸준히 찾는 지역 명소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이 의원의 요청에 시 문화예술과의 협조로 작업장 입구에 벽화가 완성돼 밝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골목으로 거듭났다.

임광호 꿈드레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장은 “입구에 멋진 장구 그림이 생겼니 아이들과 방문객들도 즐거워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숙자 의원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며 “벽화 조성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복지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사이버 보안 실태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시·군 사이버 보안 실태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갈수록 고도화·다변화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 속에서 거둔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기관의 정보보안 관리 수준과 이행 실적을 종합 진단하는 제도다.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업무수행과 시·군 보안수준 개선을 위해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 분야 등으로 나눠 실시됐다.

최근 국내 공공·민간을 향한 공격 빈도와 유형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정읍시가 꾸준히 최고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선제적·예방 중심의 균형 잡힌 보안 관리체계 덕분이다.

시는 △정보보호 전담조직 운영과 역할 분담의 명확화 △전 직원 대상 맞춤형 보안교육과 상시 자체점검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정례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장비도입·기술적 보안조치 수행 등을 통해 조직·기술·대응 전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가 연속 5년 최우수수위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학수 시장은 “5년 연속 최우수수위는 성과는 현장에서 기본을 철저히 지키려는 전 직원의 의식변화와 ‘디지털 신뢰도시’ 구현을 위한 투자·개선 노력이 쌓여 이룬 결실”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천지 우간다교회, 현지 목회자와 계시록시현

우간다 수도 캄팔라 글로벌 호텔에서 ‘요한계시록 공개 성경 시험’이 열렸다. 지난 달 27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도마자파 우간다교회(담임 임우리·이하 신천지 우간다교회)가 주최 및 주관했다. 우간다교회 성도 100명과 우간다 현지 개신교 목회자 100명, 총 200명이 참가했다. 시험은 총 100문항이 출제돼 2시간 동안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이반희 총회장이 제안했던 것처럼 계시록 말씀을 기준으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이 총회장은 “요한계시록이 신앙의 기준이 돼야 하며 계시록 22장 18~19절 말씀에 근거해 시험을 치러야 정통과 이단을 구분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신천지 우간다교회는 현재 교인 수가 8400여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